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친환경 농수산물 확대·섬 공원화 추진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는 ‘희망이 샘솟는 전사(1004개)의 섬 신안’ 건설을 위해 힘차게 도약했던 한해였다”면서 “올해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군수는 ‘신안호의 CEO’로서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요 현안사

해상 교통망 지속 확충

업과 핵심적인 군정을 직접 쟁여 잘 사는 신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압해도 송공항을 기점으로 더 편리해진 해상 교통망의 지속적 인 확충과 여객선 운항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 농수산업의 친환경 적인 생산과 판매촉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늘 푸른 생태환경의 섬 공원화 추진, 100년을 바라보는 녹색 성장 산업과 명문학교 육성 등



주요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보건, 복지, 문화, 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 군수의 올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판매촉진을 강화하는 일이다. 친환경 농업지구 및 단지 확대와 시금치 가공시설, 묘목사업 지원, 바다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갯벌생태 자원보호에 주력하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병어, 송어, 민어, 낙지, 새우젓, 흉어, 천일염, 블립, 시금치 축제 이외에도 왕새우, 강달어, 불루베리 축제를 추가해 소규모의 아름다운 ‘작은 축제’를 연중 개최해 신안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잠재 고객 확보와 유통협약을 통해 판매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은 중부, 북부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뉘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군 특성에 맞는 테마 구상,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신 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게 된다.

또 각별 도립공원 관리 및 해양 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최대의 갯벌보유 지역인 신안군을 ‘생태보고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작은섬 도선 운영비 확

천일염 마케팅체계 구축

대 지원과 여객선 운임 및 생활품 운송비 지원을 통한 획기적인 섬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장,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도서 지역 보건·위생 수준 향상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조완님기자 wncho@



목포상공회의소 2010 신년인사회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6일 호텔현대 컨벤션홀에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주승용, 유선호, 이운석, 김영률 국회의원, 박재순 한나리당 최고위원 정종철, 목포시장, 김일태 영암군수 등 각급 기관·단체장 및 상공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목포상공회의소 제공

진도 모도 ‘낚시테마형 바다목장’ 만든다

郡 5년간 50억 투입…인공어초 조성·치어 방류

진도군이 올해부터 의신면 모도 연안수역에 ‘낚시관광테마형 바다목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진도군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매년 10억씩 5년동안 총 50억원을 투입해 연안 해역에 인공어초를 만들어 물고기가 자라고도록 하는 바다목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해양수산부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신면 모도 일원 수심 3~10m 연안 수역에 물고기가 산란 및 생육할 수 있는 인공 어초를 투입할 계획이다.

‘바다목장’은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등을 투입, 물고기 서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 후 치어를 방류해 자연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친환경 생산 시스템이다.

특히 군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의 일률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관광객 유치와 어업인 소득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낚시관광 테마형’ 바다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소규모 바다목장이 진도군 해역에 조성되면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의 증가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되고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은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흑산도~가거도

쾌속선 운항 30분 빨라져

목포~흑산도~가거도를 오가는 체속선의 운항시간을 30분 앞당겨 달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목포~가거도 간 운항하는 여객선을 설득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거도에서 매일 낮 12시 30분에 출발하는 체속선이 흑산항에서 30분간 멈춰지 않고 곧바로 출발해 오후 5시면 목포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관공서 일과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인 만큼 최소 1시간은 당일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신안=조완님기자 wncho@

삼학도 공원 내달 완전 개방

목포시, 중·대 취수갑문 공사 이달 말 완료

지난 2007년 복원한 목포 소삼학도에 이어 다음 달에 중·대 취수갑문 공사를 완료해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공간인 삼학도는 1968~1973년 연륙공사와 절개, 무분별한 매립 등으로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